

'개미장터' 변신 예술의 거리 활기 넘쳤다

'신개미장터' 개막...10일까지
회화·도자·공예 등 총망라
50여명 작가 140여점 선봬
10만~2백만원대 작품 다양



광주 예술의 거리에서 10일까지 열리는 '신개미장터'는 신진 작가들의 다양한 작품을 소개하고 작품의 생산과 소비의 선순환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서양화, 한국화, 아크릴, 판화, 도자, 조소, 공예, 조각, 사진... 다양한 장르의 미술 작품들이 광주 예술의 거리 '개미장터'에 한데 모였다. 순수미술과 공예, 디자인, 미디어 등 저마다 분야에서 개성있는 작품 세계를 일궈가고 있는 작가들의 작품이다.

지난 5일 오후 6시. 태풍의 영향으로 간간히 비가 내렸지만, '개미장터'로 변신한 예술의 거리에는 이곳을 찾은 학생들, 젊은 작가, 인근 상인들, 시민들로 모처럼 활기가 돌았다. 때마침 주말을 앞둔 '불금'이라 불리는 일상에서 벗어난 흥분분함과 들뜬 분위기가 겹쳐 흥겨움이 감돌았다.

광주 예술의 거리 다양한 장르의 '개미장터'로 새롭게 부활했다. 오는 10일까지 동부경찰서 쪽 예술의 거리 인근 건물(광주시 동구 예술길 29)의 지하 1층과 3층에서 장터가 열리고 있는 것. 이곳에서는 순수미술, 현대공예, 디자인, 사진, 미디어 분야에서 자신만의 작품세계를 만들어 가고 있는 강동호 작가 등 50여명이 참여해 140여점의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미술 퍼레이드 신개미장터'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현대미술과 신진작가, 실험적 작품을 소개하고 미술 작품의 생산, 소비의 선순환 구조를 견인하기 위해 기획됐다. 또한 예술의 거리는 장소성을 발견하고, 신진작가와 작품을 소개하는 무대를 만들자는 취지도 포함됐다.

축제의 문은 지난 5일 오후 6시, 행사 관계자와 작가 시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조흠 작가가 소울, 펑크, 힙합, 알앤비 등으로 구성된 DJ쇼를 진행

했다. 듣기 편하고 리듬감이 있는 음악은 실내 분위기를 축제의 한마당으로 이끌었다. 다양한 장르의 미술품과 다양한 장르의 음악이 어우러진 라운지는 현대 예술의 실험장 같은 분위기가 묻어났다.

행사를 주관하고 기획한 서지안 아트컴퍼니모도 대표는 "광주 예술의 거리는 전남도청의 이전과 미술경기 불황으로 침체된 상태지만 여전히 광주의 문화명소"라며 "예술의 거리를 다시금 조명하고 나아가 젊은 작가들에게 창작 의욕을 북돋워 주고자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오프닝에 앞서 VIP 투어가 오후 5시부터 진행됐다. 김여송 광주일보 사장, 한희원 화가를 비롯해 미술작가와 미술관장, 컬렉터 등이 전시를 관람했다. 특히 3층에 마련된 미디어아티스트 신도원 작가의 '미

디어 존'은 참석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평화를 상징하는 소녀의 눈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 트럼프 미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이 펼쳐지고 중간중간 전쟁의 그림자가 오버랩된다. 또한 일정한 간격으로 레이저(rayer)가 분사됨으로써 전체적으로 미디어 아트 효과를 연출했다.

이어 전시장에서는 네트워킹 파티가 열렸다. 작가와 컬렉터, 시민, 관람객이 어우러지는 친교의 시간이었다. 행사 관계자와 미술계 관계자들이 소개에 이어 행사 취지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전시장에는 10만원대부터 200만원대까지의 다양한 작품이 전시돼 있다. 가장 핫한 순서는 미니 미술품 경매 시간. 경매사로 참여한 이조흠 작가의 소개로 10여 개 작품의 경매가 시작됐다. 최소10만원부터

50만원 안팎의 작품이 새로운 주인을 맞았다. 경매가 진행되는 동안 실내는 과거 고미술상들이 참여해 예술품을 판매했던 '개미장터'의 분위기가 살아나는 듯한 활기가 돌았다.

전시 진행을 맡은 윤진영 코디네이터는 "젊은 신진 작가들이 예술의 거리에 들어오는 것이 쉽지 않다"며 "이번 행사는 단순히 미술장터로 끝나지 않고 명맥을 이어갈 수 있도록 견인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7일에는 미디어아티스트 진시영 작가의 작업실을 탐방하는 일일 아트 스쿨이 펼쳐졌다. 이번 '신개미장터'는 10일까지 열리며 전시 진행과 아울러 작품도 판매된다. 문의 070-7766-7668, 010-4337-1004.

/박성현 기자 skypark@kwangju.co.kr

손열음의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8번·21번'... 내일 광주문예회관



피아니스트 손열음(사진)이 오는 9일 오후 7시 30분 광주 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손열음의 아마데우스' 공연을 갖는다. 그는 올해 평창 대관령음악제의 예술감독을 맡아 성공적으로 행사를 치렀다는 평가를 받았다.

손열음은 가장 좋아하는 작곡가로 모차르트를 꼽았다. 지난 2011년에는 14회 차이코프스키 콩쿠르에서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21번'을 연주하며 준우승과 함께 '모차르트 협주곡 최고 연주자상'을 거머쥐었다. 이후 그의 콩쿠르 실황 연주 유튜브 조회수가 1100만 회를 넘어 세계적인 관심을 받았다. 이번 연주회는 자신에게 특별한 의미를 갖는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21번 C장조 작품번호 467'과 '피아노 협주곡 8번 C장조 작품 246' 등 모차르트의 작품으로 무대를 채운다.

이번 무대의 부제 '넬리 마리너 경을 기리며'에서 알 수 있듯이 손열음은 영화 '아마데우스' 음악감독이었던 영국의 거장 넬리 마리너 경의 추모 2주기에 맞춰 순회 공연을 마련했다. 그와 고(故) 넬리 마리너 경은 지난 2016년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더 필즈(ASMF) 내한 공연에서 함께 연주한 뒤 마리너 경의 제안으로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전곡 녹음을 시작했다. 하지만 '21번' 녹음을 한 뒤 다음 녹음을 준비하던 마리너 경은 같은 해 10월 운명을 달리했다. 손열음과 마리너 경, ASMF가 함께 녹음한 음반 '모차르트'는 현재 시종에서 판매되고 있다.

이날 손열음과 호흡을 맞춘 '오케스트라 앙상블 서울(OES)'(지휘 이규서)은 서울대학교 음대 출신 젊은 음악가들이 지난 2014년 창단한 정통 실내합주단이다. 7일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 시작된 전국 순회는 광주, 전주, 천안, 부산, 대구, 강릉을 거쳐 27일 자신의 고향인 원주에서 끝을 맺는다. R석 7만원, S석 5만원, A석 3만원. 문의 02-733-0301. /박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청동회' 초대전 10일까지 시립미술관 금남로분관



이금주 작 '담쟁이/여인II'

그림 '청동회' (회화 이금주) 초대전이 오는 10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 금남로분관에서 열린다.

1980년 창립후 매년 정기회원전과 함께 다채로운 특별전을 열고 있는 청동회는 매월 자연을 배우는 마음으로 야외 스케치를 나가 그 정취를 화폭에 담고 작품을 구성한다. 회원들은 국내는 물론 태국, 인도네시아, 중국, 필리핀 등 해외 스케치도 다녀왔다. 올해는 북포, 영암 월출산, 순천 선암사, 구례 사성암, 화순 숲정자, 여수 등으로 스케치 여행을 떠나 아름다운 자연풍광을 묘사했다.

이번 전시에는 노의용·양정철 고문이 화려한 색감의 '구름천사'와 '여름 그리고 연발'을 출품했다. 또 김광래·김정철·김혁·박현희·박희경·백동일·설경암·송지운·안태영·이금주·이충연·전현자·주성범·최용석·한철환·허정아 작가가 참여해 '바닷가이야기', '빛꽃엔딩', '여수바다', '도갑사 가는 길' 등 풍경 작품들과 '아직도 알바중', '할머니가 주신 왕사탕', '양국성의 바빌' 등 자신만의 개성이 담긴 다채로운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문의 062-222-8053.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인쇄소공인지원센터 수강생 캘리그래피 작품전

광주디자인센터 13일까지 담양 공예미술관 보임셴... 스트링 아트 무료 체험



(재)광주디자인센터는 오는 13일까지 담양 공예미술관 보임셴(관장 김현정)에서 캘리그래피 전시를 진행한다. 올해 5월 광주 인쇄 소공인 및 디자인·공예 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두 기관은 공동 협력의 일환으로 이번 전시를 함께 진행하게 됐다.

'화목자전(和睦字展)'을 주제로 열리는

전시회에서는 광주디자인센터가 운영하는 광주인쇄소공인지원센터(센터장 윤보연) 캘리그래피 교육과 수료생들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인쇄소공인지원센터는 4개월간 캘리그래피를 활용한 슬빙 및 책표지를 디자인하는 심화교육을 진행하고 우수 작품 39점을 선정, 전시를 진행한다. 전시에는 토탈프린트 백기환 대표, 영창

인쇄사 문보경 대표 등 13명의 교육생이 참여해 기존의 책 표지를 캘리그래피로 재해석하거나, 산을 테마로 한 작품, 술(병)을 컨셉으로 브랜드했다. 전시관에는 '백범일지', '그릴 때 있으시죠', '칼의 노래' 등 출판물 디자인과 '매화', '달래야 머루야' 등 술(병)을 컨셉으로 브랜드한 다양한 손글씨 작품들이 눈길을 끈다.

이번 전시는 2018 미술주간 행사 프로그램 중 하나로 진행되며 무료 체험프로그램으로 스트링 아트도 열린다. 문의 061-383-6473.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자연의 소리... 국제보청기

2~3년만 가는 방수? 20년 이상 너끈히 가는 옥상방수!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자재 선정 IPALG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특허공법

완벽방수 내구성보강 2중단열 지진에 강한 탁월한 내구성 6년무상A/S 정기점검

1. 시공전 2. 단열베이스카펫 시공 3.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 시공 4. 시공후

완벽한방수 난연소재 맞춤형디자인 2중복합단열 내진보강 IPALG 트라이슈머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건물에 맞춤형 디자인을 입혀 리모델링 하세요!

광주전남 대리점 (062)511-0444
H.P 010-6603-0405
목포 (061)284-0485
여수 (061)683-0485
순천 (061)726-0482
광양 (061)795-0485

공식홈페이지 www.IPALG.co.kr
공식블로그 blog.naver.com/waterproof01